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병마 이겨낸 김경호 9.5집 '어라이브' 발표

로커 김경호(38)가 9.5집 '어라이브(Alive)'를 22일 발표한다.

이번 음반에는 신곡 4곡과 투니버스에서 방송한 일본 애니메이션 '은혼'의 한국판 주제곡 '질주', 부활의 명곡 '비와 당신의 이야기'를 후배가수 박완규와 녹음한 리메이크곡 등 6곡이 수록됐다. '비와 당신의 이야기'를 17일 음악사이트에서 먼저 공개했고, 25일 타이틀곡 등 전체 음원을 선보인다.

9집까지 발표하며 4옥타브를 넘나드는 음폭으로 15년 간 총 800여 회의 라이브 공연을 펼친 그는 2년 전부터 오른쪽 다리 대퇴 골두의 순환 장애로 뼈가 괴사하는 병인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으로 투병했으나 지난해 8월 수술을 통해 나았다.

드라마 '친구, 우리들의 전설'

친구 현빈

왼쪽부터 현빈, 김민준, 서도영, 이서언.

왕자님이 껄렁껄렁해졌다

영화 '친구'의 장동건 역

허스키 보이스 내려 하루 담배 세갑 피워

"영화 '친구'는 고3 때 몰래 봤어요. 그때부터 지금껏 이 작품에 대한 욕심을 키워왔습니다."

백마 탄 왕자님이 거친 조폭으로 변신했다. 그 간극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도 같은데, 웬걸 무려 9년을 키워온 꿈이었단다.

탤런트 현빈(27)이 27일 첫선을 보이는 MBC TV 주말특별기획 '친구, 우리들의 전설'에서 조폭의 일원인 동수 역을 맡아 데뷔 후 지난 6년간 보여줬던 '왕자님' 이미지 깨기에 도전했다.

'친구, 우리들의 전설'은 2001년 관객 800만명을 모은 영화 '친구'의 드라마 버전. 곽경택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아 2시간 분량의 영화에 살을 붙여 20부 드라마로 만들었다.

현빈이 맡은 동수는 영화에서 톱스타 장동건이 연기해 화제를 모았던 역할이다.

현빈은 "연기자로서 꼭 한번은 해봐야하는 역할 같았다. 동수가 마초라서도 그렇고 남자끼리, 남자 냄새나는 작품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어떤 이미지를 깨야겠다고 선택한 작품은 아니다"는 그는 "실제로 여자 친구보다는 남자 친구가 많은 편이고 친한 형들도 많아서 이번 동수 역이 개인적으로는 잘 맞았다"고 밝혔다.

"9년 전에 영화를 본 순간 파격적이었고 신선한 면에 반했어요. 그냥 이런 작품에서 동수 같은 역할을 해보고 싶었어요. 또 이 작품을 한다고 하니 장동건 선배님도 해보라고 했고요. 사실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본전일 것이라며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전 전후좌우 사정 안보고 그냥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촬영이 힘들어도 한번도 출연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드라마는 영화의 주요 장면을 그대로 가져온다. 장동건의 동수가 내뱉은 '니가 가라 하와이', '마이 묵었다 아이가' 등의 대사도 그 상황 그대로 나온다. 장동건은 당시 동수를 연기하며 허스키 보이스를 내기 위해 하루에 담배 세 갑씩을 피우는 등의 노력(?)을 했다.

"안그래도 장동건 선배님의 그러한 경험을 듣고 '왜 그러셨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촬영을 하니 그렇게 되더라고요.(웃음) 저도 담배를 끊었다가 이 작품 하면서 다시 피우게 됐어요. 또 제가 원래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하루에 2~3리터씩 마시는데 이번 현장에서는 물을 되도록 마시지 않았어요. 최대한 목이 잠기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빈은 이 작품에서 '훈장'을 얻기도 했다. 조폭이라 기본적으로 액션 연기가 많았는데 부상의 위험도 여러번 넘긴 것.

"몸을 많이 써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평생 안고 가야할 흉터도 생겼어요. 배 위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었는데 잘못 뛰어내리면서 오른쪽 무릎이 기름통에 긁히면서 살이 패였습니다."

준석 역의 김민준을 비롯해, 대부분의 출연진이 부산이나 경상도 출신인 것과 달리 현빈은 이번에 부산 사투리를 외국어처럼 익혀야했다.

"부산 분들처럼 사투리를 쓴다는 것은 애초 무리였지만 곽 감독님이 직접 대사를 녹음한 테이프를 주셔서 매 순간 그것을 들으며 연기를 했습니다. 늘 대사를 듣고 6개월 동안 부산에 머물며 촬영했지만 여전히 사투리는 어렵네요. 다만 전에는 사투리를 익히는 데 느렸다면 지금은 좀 빨리 따라할 수 있는 정도는 된 것 같아요.(웃음)"

현빈은 드라마와 영화의 차이점에 대해 "숨겨졌던 이야기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헌정 음반 쇼케이스 유영석

"내 20년 음악 활동 조금은 대단했구나 착각하게 됐네요"

"20년간 음악하면서 제가 대단하다고, 연예인이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음악을 했고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했죠. 오늘 비로소 제가 '조금은 대단했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됐네요."

푸른하늘과 화이트 출신 싱어송라이터 유영석(44)은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헌정 음반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벅찬 소회를 밝혔다.

16일 서울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 열린 쇼케이스에는 음반에 참여한 조규찬, 김연우, 박기영, 슈퍼주니어 규현, 유리상자 등이 참여해 유영석의 히트곡을 재해석해 노래했다.

직접 음반 프로듀서에 쇼케이스 사회까지 맡은 유영석은 "30~40대에게 옛날의 감성을 요즘 것으로 포장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음반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네모의 꿈'을 부른 조규찬은 "원곡은 친절한 청사진"이라며 "유영석 형의 음악은 근간이 튼튼하기에 이곡을 녹음할 때 멋있게 불러 평가받으려 하기보다 그저 곡의 아름다움에 행복했다"고 말했다.

'눈물 나는 날에는'을 부른 김연우의 무대도 화기애애 했다.

가장 큰 환호를 받은 건 이번 음반의 타이틀곡 '7년간의 사랑'을 부른 슈퍼주니어 규현의 무대였다. 유영석은 슈퍼주니어의 최근 음반에 '샤이닝 스타(Shining Star)'라는 곡을 선물한 인연이 있다.

유영석이 "'7년간의 사랑'은 노래는 단순하지만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부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며 "규현이 노래를 녹음하다 멈추고는 가사의 뜻을 묻더라"고 말하자, 규현은 "7년은 아니지만 3년간은 사랑을 해봤다"고 말해 웃음을 유발했다. 규현은 "처음 홀로 무대에 서니 앞이 캄캄하고 긴장된다"면서도 노래의 감정을 잘 살려 큰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 무대는 유영석과 오래된 지인인 유리상자(박승화, 이세준)가 '내게 영원히'를 부르며 마무리했다.

이밖에도 7월 발매될 20주년 헌정 음반에는 이수영, 장혜진, BMK, 김현철 등이 참여했으며 총 18곡이 2CD에 담긴다.

/연합뉴스